위기의 광주 대학들 교육과정 공유 나서

대학간 벽 허물고 상생 길 찾기
광주대·호남대·광주여대
2학기부터 공동교양과목 운영
전남대·조선대 1학기부터 개설

호남대·광주대·광주여대 학사업무 관계자 등이 광주여대 교양교육원에서 2022년 공동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지역 대학이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 공유, 학점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간 경쟁의식 때문에 차별화한 교육을 강조해온 대학들이 상생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최근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광주대, 광주여대와 2022년 공동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세 학교는 오는 2학기부터 호남학 관련 교양교과목(호남대)과 마음 교양(광주여대), 창작과 향유(광주대) 등 교양교과목을 공동 교양교과목으로 선정했다. 본격적인 운영 교과목은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들 교양 과목은 각 대학을 대표하는 강의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이 공동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학생들은 소속 학교를 벗어나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받게 된다.

대학들이 공동 교양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상대 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또한 신입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의 현실을 공동보조를 통해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다.

호남대학교 AI교양대학 송창수 학장은 "앞으로 세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공유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양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 학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이미 지난해 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교양교과목 개설 협약을 맺고 올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동 개설 교양교과목으로는 '옷장 속의 세계시민' (전남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위은하 교수, 정경희 강사), '토론과 민주지성'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류도향 교수), '공감의 시대와 반려동물'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장은영, 이영란 교수), '색채, 문화 그리고 상상력'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디자인공학과 한지애 교수)이다.

조선대 교학팀 관계자는 "타 지역 대학과 학생 교류 등은 추진한 바 있으나 조선대·전남대가 학점교류 강좌를 개설하기는 처음"이라며 "학생들의 반응이 있는만큼 올 1학기 강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앞으로 대학 교류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대학 위기는 신입생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대의 2022학년도 신입생 정원은 4251명이지만 4213명이 등록을 마쳤다. 최종 등록률은 99.11%로 지난해 96.67%보다 소폭 올랐지만 정원에서 38명이 미달했다. 광주 용봉캠퍼스에선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응용생물학과, 인공지능학부에서 1명씩 총 3명이 미달됐다. 여수캠퍼스는 해양바이오식품학과 등 10개 학과의 정원 35명이 미달됐다.

조선대는 신입생 4385명을 모집해 4370명이 최종 등록했다. 10개 학과에서 14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등록률은 99.7%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수석유화학고 취업률 70% 달성

기업별 맞춤형 취업교육 등 성과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마이스터고인 여수석유화학고가 코로나19로 좁아진 채용시장에도 취업률 70%를 기록했다.

18일 여수석유화학고에 따르면 올해 졸업자 92명 가운데 64명이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취업하는 성과를 이뤘다.

대기업인 LG화학, GS칼텍스, 포스코,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11개의 업체에 취업했다. 공기업·공무원 분야에도 한국전력공사,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등 11개의 직종에 취업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채용 규모가 축소된 상황임에도 석유화학고만의 기업별 맞춤형 취업, 면접 지도와 기업체 발굴 등의 노력을 지속해 온 성과다. 이를 토대로 석유화학고는 지난해도 취업 역량 강화캠프와 기업 맞춤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 복무를 마친 졸업생 중 16명이 YNCC와 LG화학 등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졸업생 취업률도 80%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용 여수석유화학고 교장은 "우리 학교의 매년 질 높은 취업률은 교직원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개교한 여수석유화학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학비와 기숙사비 등이 지원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호남대 'AI융합대학 지원사업' 1차년도 평가 '매우 우수' 등급

6개 학과 학생 400여명 참가

호남대에서 열린 'AI융합대학 지원사업' 1차 년도 2121 성과공유회. 〈호남대 제공〉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AI융합대학 지원사업' 1차 년도 연차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호남대 AI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정영기)은 1차 년도 사업을 통해 학생자율 프로젝트, 기업연계 프로젝트, AI융합 실습교과 지원, AI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했다.

연차평가에서 호남대는 국제그린카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AI자동차융합 인재양성사업으로 광주시의 미래자동차산업에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홍보했고, AI기초, 산학협동 교육과정, AI창업 등 산업체와 연계한 프로그램들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I융합교육과정에는 미래자동차공학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AI빅데이터학과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1차 년도에 5개 학과 228명에게 7200여만원의 AI융합교육과정 참여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호남대는 사업 2차 년도인 올해 교내 비전공자와 광주권 타 대학 학생들도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과목 강의 동영상 및 자료를 개방형 플랫폼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 AI집적단지 조성사업 HPC,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과 연계해 인공지능 실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AI 학습 프로그램, SW 솔루션, 실증테스트 자원을 활용해 인공지능 산업분야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 협의회를 열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 코로나 속 학생 공정평가 강화

중간고사 앞두고 권역별 협의회

오미크론 위기 속 각 급 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가 임박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전남 지역 일반고 교감과 교육지원청 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오미크론 폭증의 '준재난' 상황에서 치러지는 1학기 중간고사를 최대한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일선학교 교감과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정기고사 보안관리 계획 수립 ▲평가 단계별 자체 점검 강화 ▲교과협의회를 통한 출제문항 검토 강화 ▲이의 신청 기간 준수 및 운영 등 현장에 필요한 평가 지침도 안내했다.

특히 학생평가의 기본원칙인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준수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설치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 협의 결과 및 학교보건법, 현재 방역지침에 따라 응시제한 방침을 유지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교감은 "학생 확진자 및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자체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 학생들의 배움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평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자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학생의 노력을 공정하고 신뢰 있게 평가해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제부터 채점까지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한 학생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